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미영^{1*}, 강 훈²

¹대전평생교육진흥원 ²충남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f adult learners in the Lifelong Learning happiness

Kim Mi-Young^{1*}, Hun Kang²

¹Daeje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²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관계에서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동기 및 교육기관 특성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학습자의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평생학습 참여경험, 직업,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차이는 없으며, 둘째, 성인학습자 특성이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셋째, 성인학습자 특성은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동기 및 교육기관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넷째, 성인교육자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습참여 동기와 교육기관 특성은 각각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성인교육자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매개 역할을 하지 않으나 학습참여동기와 교육기관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대해 각각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생학습 경험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성인교육자가 성인학습자 특성 이해의 향상과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질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adult educator's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ttending adult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learning and the institution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according to the sex of the adult learners, education level, age, residenc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lifelong learning, occupation, and type of lifelong programming being participated.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do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educators,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learning and institution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ors do not affect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learning and institution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educators do not have a mediating ro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and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learning and institution characteristics have shown a complete medi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and the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ticipating motivation of adult learners, adult educator's improved understanding on adult learners and education quality of education institution are very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happiness index through a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Keywords : Adult educator, Happiness index of lifelong learn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Kim (Daeje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Tel: +82-42-250-2750 email: miyoung@cnu.ac.kr

Received December 2, 2015

Revised (1st March 7, 2016, 2nd March 21,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고령화, ICT 기술혁신, 지식과 기능의 짧은 생명주기,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져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라도 제시하듯 세계기구와 선진국에서 발표되는 미래보고서나 정책보고서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생학습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학습사회는 사전적으로 국민 각자가 자아실현, 생활향상 또는 직업적 지식과 기술의 획득 등을 목적으로 평생에 걸쳐 자주적, 주체적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1]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러한 학습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망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계기구나 평생교육을 대하는 관점과 목적을 보면 UNESCO는 주로 인간성 향상을 강조하였고, OECD는 직업능력 향상을 강조하였으며, EU는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개인 삶의 질 향상, 신기술과 직업능력 향상,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평생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평생교육의 성과나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개인변인과 성과를 밝히는 연구[2, 3, 4, 5], 성인교육자의 교육적 처치에 따른 교육성과를 밝히는 연구[6], 평생교육기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2, 7, 8]들이 있지만 아직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학습성과 연구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물질적 풍요로움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 행복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인간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수정하려는 심리학에서 이제는 인간의 긍정성과 강점을

개발하면 누구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 심리학을 바탕으로 긍정 심리학이 전 세계적으로 불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과 뇌과학적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행복을 철학적 이해에서 나아가 과학적인 이해[9]와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행복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행복지수를 밝히고 행복의 공식을 도출[10, 11, 12]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학습 행복지수를 개발한[13] 연구도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구현과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행복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의 효과성을 전제로 행복을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참여한 후의 결과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 활동을 이루고 있는 성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평생교육기관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생학습 행복지수와의 관계를 탐구하여 평생학습 설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측면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인학습자 특성은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 교육기관 특성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 교육기관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 교육기관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평생학습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평생학습의 효과와 관련있거나 영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성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성인학습자 특성 관련 연구는 김진호[6], 이숙원[2], 임숙경[3]이 있었으며, 성인교육자 특성 관련 연구는 김진호[6]의 연구만 발견할 수 있었고, 평생교육기관 관련 연구는 이숙원[2], 김애련[7], 김혜숙

[8]이 있었다. 또한, 평생학습참여와 행복의 관계를 권혜인[4], 권인탁[5]이 밝혔고 평생교육기관이 행복과 관련 있음을 권혜인[4]이 밝혔다.

1.2 평생학습과 행복 관련 선행연구

평생학습과 행복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OECD[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 신득렬[16], 윤창국[17], 박영실[18], 장환영[19], Walking into the light[20], 권이종·이상오[21], Narushiam, Liu와 Diestelkamp[22], Sabates & Hammond[23], 고은현·이성[13]이 있었다.

이러한 문헌분석을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 특성을 외생변수인 독립변인, 평생학습 행복지수를 내생변수인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영향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주고 매개변인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개변인으로서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는 연구에 따라 학습참여동기, 성인교육자 특성, 교육기관 특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인으로 변인끼리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상호-직접인과관계를 살펴보고 학습성과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26]를 바탕으로 매개변인 간 양측화살표로 표기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Fig. 1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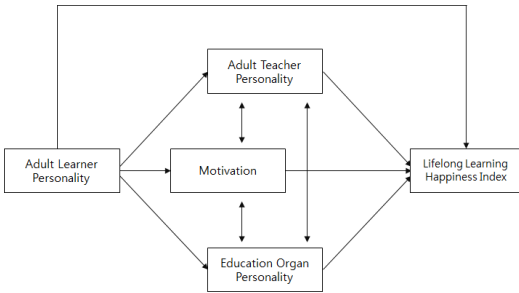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행복지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D시에 있는 D

시민대학 학습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D시민대학은 1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한 학기에 1000개 정도의 강좌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평생교육기관이다. 교육영역은 총13개 아카데미로 인문학, 외국어, 심리·리더십, 요리, 건강·스포츠, 음악, 공예·미술, 공연예술, 사진영상예술, 직업교육, 공동체, 경제·경영, 과학·컴퓨터로 구분되어 있다. 이 교육영역을 내용과 방법측면에서 기능·예능 영역과 지식·교양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교양에서는 인문학, 외국어, 심리·리더십, 직업교육, 공동체, 경제경영 아카데미는 기능·예능영역에는 요리, 건강·스포츠, 음악, 공예·미술, 공연예술, 사진영상예술, 과학·컴퓨터 아카데미로 구분하였다. 설문을 위하여 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참여한 성인학습자 중 기능·예능 분야와 지식·교양 분야로 구분하여 각 200부씩 총400부의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31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배경은 [Table 1]과 같다.

3.2 측정도구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Table 1]와 같다.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성인학습자 특성의 하위변인인 학습가치 측정도구는 Eccles와 Wigfield[25]가 만든 것을 양명희[27], 임숙경[3]이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학습효능감 측정도구는 Guglielmino[28]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기초로 하여, 김진호[6], 임숙경[3]이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숙경[3] 연구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김진호[6]가 제안한 척도로 몰입상태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임숙경[3]이 수정한 것으로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매개변인은 학습참여동기, 성인교육자 특성, 교육기관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참여동기 측정도구는 Houle[29]의 참여동기 이론을 근거로 Boshier[30]가 개발한 것을 임숙경[3]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목적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으로 요인을 구분하였고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교육기관특성의 하위변인인 기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는 Grotelueschen 평가모델[31]과 이숙원[2], 김애련[7], 이숙원[2], 임숙경[3]이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숙경(2007)[7]의 척도 중 교육기관 만족도는 기관의 비전, 인적·물적자원

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별성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81과 .90이었다. 성인교육자 특성의 하위변인인 성인학습자와의 관계 측정도구는 김진호(2003)[6]가 학습자와 성인교육자간 관계와 학습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강의 진행방법 측정도구는 김진호(2003)[6]가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과제제시방법 .84, 학습자참여 .81, 교육자열정 .87이었다. 종속변인인 평생학습 행복지수 측정도구는 고은현·이성[13]이 성인의 평생학습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내적성장 만족, 부정정서 감소, 의미추구 향상의 요인으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3 자료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치 산출과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SPS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검사도구의 양호도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구조관계 분석은 AMOS 21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절차는 첫째, 가정의 검토를 위해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왜도, 첨도를 구하였으며,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검증 방법인 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고 셋째, 성인학습자 특성과 행복지수의 구조관계 및 참여동기와 성인교육자, 교육기관특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평생학습 참여경험, 직업 및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F검증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와 같다. 평생학습 행복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lifelong learning happiness

variable	Division	N	M	SD	F
Subject	Training · Art Knowledge	181	3.850	.714	.337
		133	3.783	.675	
	Total	314	3.822	.697	
Gender	Male	113	3.758	.656	.706
	Female	201	3.857	.718	
	Total	314	3.822	.697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0	3.976	.778	.551
	Professional college	52	3.896	.641	
	University	153	3.754	.710	
	Graduate School	58	3.800	.638	
	Total	314	3.822	.698	
Age	20's	21	3.638	.588	.667
	30's	43	3.695	.804	
	40's	79	3.904	.690	
	50's	88	3.776	.678	
	more than 60	83	3.904	.684	
	Total	314	3.822	.697	
Residence	Dong-gu	47	3.834	.671	.790
	Jung-gu	106	3.757	.769	
	Seo-gu	97	3.876	.648	
	Daeduck -gu	27	3.841	.724	
	Yeusung-gu	35	3.831	.657	
	Total	313	3.822	.698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experience	1 year less	135	3.817	.750	.729
	1year~2year	141	3.769	.636	
	3year~4year	26	4.119	.705	
	5year~6year	6	3.800	.792	
	7year~8year	6	4.450	.495	
	Total	314	3.822	.697	
Occupation	Office workers	84	3.861	.719	.640
	Self-employment	39	3.759	.581	
	Housewife	93	3.903	.699	
	Student	16	3.688	.496	
	Retirees	50	3.872	.650	
	Total	282	3.822	.697	

4.2 행복지수와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수집한 연구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왜도 및 첨도를 구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왜도는 절대값이 3이하, 첨도는 절대값이 8이하이면 정규성이 가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량정상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 간에 관계성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Table 3와 같이 상관행렬을 살펴보았다. 연구 변인간 상관계수는 $p < .01$ 또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변인 간에 관계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상관관계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n=314)

Domain	Division	question	Reliability (α)	M	SD	Skewness	Kurtosis
Independent variables	Adult Learner	Learning Value	.931	4.288	.616	-.439	-.615
		Learning Efficacy	.810	3.928	.580	-.008	-.305
		Learning Commitment	.771	3.750	.469	.125	-.139
Parameter variables	Motivation	Goal-oriented	.827	3.169	.881	-.245	-.227
		Activity-oriented	.845	3.530	.786	-.407	.296
		Learning-oriented	.767	3.442	.790	-.084	-.195
	Adult Teacher	Relationships with learners	.960	4.207	.685	-.509	-.303
		Task present method	.961	4.213	.683	-.470	-.539
		Learner Participation	.925	4.126	.715	-.389	-.532
Organ	Teacher passion	.950	4.282	.677	-.766	.015	
	Organ satisfaction	.743	3.841	.718	-.692	.890	
The dependent variables	Lifelong Education	Program satisfaction	.917	3.783	.753	-.455	.533
		Improve self-esteem	.927	3.807	.714	-.146	-.200
	Happiness Index	Satisfactory internal growth	.889	3.818	.715	-.230	.181
		Decrease negative emotions	.865	3.883	.729	-.425	.225
	Improved means to pursue	.915	3.761	.829	-.595	.762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n=314)

V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35***	1										
3	.394***	.529***	1									
4	.553***	.698***	.579***	1								
5	.522***	.239***	.147**	.310***	1							
6	.551***	.372***	.270**	.447***	.550***	1						
7	.508***	.343***	.321***	.413***	.623***	.573***	1					
8	.537***	.621***	.428***	.558***	.174**	.323***	.217**	1				
9	.546***	.677***	.475***	.584***	.189**	.329***	.258***	.835***	1			
10	.525***	.623***	.430***	.557***	.223***	.343***	.253***	.801***	.850***	1		
11	.542***	.694***	.429***	.562***	.173**	.362***	.252***	.826***	.876***	.815***	1	
12	.633***	.667***	.501***	.619***	.313***	.431***	.346***	.748***	.718***	.672***	.715***	1
13	.583***	.587***	.453***	.504***	.302***	.394***	.333***	.680***	.644***	.611***	.661***	.825***

** p<.01, *** p<.001
 1.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2. Learning Value 3. Learning Efficacy 4. Learning Commitment 5. Goal-oriented 6. Activity-oriented 7. Learning-oriented 8. Relationships with learners 9. Task present method 10. Learner Participation 11. Teacher passion 12. Organ satisfaction 13. Program satisfaction

4.3 측정모형의 분석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심리특성 변인인 학습가치, 학습효능감, 학습몰입, 학습참여동기, 평생학습 행복지수와 성인교육자 특성 변인인 학습자와의 관계,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참여, 교수자 열정 및 교육기관 특성인 교육기관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분석자료는 수집한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인과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2 , GFI, CFI, TLI 및 RMSEA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도 지수는 $\chi^2=225.704$, $df=95$, $p<.000$ 이고 GFI는 .923, CFI는 .972, TLI는 .940로 적합기준 .90이상이며, 절대적합지수의 하나인 RMSEA는 .069인데 이는, 적합기준 .05~.08 이하로써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Structural Model Fit analysis

Model	χ^2	df	GFI	CFI	TLI	RMSEA
Fit Index	225.704 (.000)	95	.923	.972	.940	.069
Fit Standard	p>.05		>.90			.05<reasonable fit<.08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각 이론 변인의 모수(경로계수)의 추정치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성인교육자 특성(경로계수 .790, C-R=13.711)과 학습참여 동기(경로계수 .520, C-R=7.613), 그리고 교육기관 특성(경로계수 .236, C-R=2.710)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생학습 행복지수(경로계수 .130, C-R=.136)에는 영향이 없었다. 둘째, 성인교육자 특성은 교육기관 특성(경로계수 .560, C-R=7.20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면 평생학습 행복지수(경로계수 .152, C-R=1.705)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셋째, 학습참여 동기는 교육기관 특성(경로계수 .166, C-R=3.067)과 평생학습 행복지수(경로계수 .460, C-R=7.583)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경로계수 .227, C-R=2.419)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R²(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기관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 성인교육자 특성 및 참여

동기에 의해 72.3%가 설명되었고, 평생학습 행복지수는 성인학습자 특성, 성인교육자 특성, 참여동기, 교육기관 특성에 의해 66.2%가 설명되었다. 성인학습자 특성, 성인교육자 특성, 교육기관 특성 및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구조모형은 Fig. 2와 같다.

Table 5.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

Path		β	S:E	C:R (t value)
Adult Learner Personality →	Adult Teacher Personality	.790	.092	13.711***
	Motivation	.520	.119	7.613***
	Organ Personality	.236	.149	2.710**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130	1.491	.136
Adult Teacher Personality →	Organ Personality	.560	.084	7.202***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152	.096	1.705
	Organ Personality	.166	.053	3.067**
Motivation →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460	.060	7.583***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227	.094	2.419*
Organ Personality →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227	.094	2.419*
SMCC	Organ Personality .723, Lifelong Happiness Index .662			

* p<.05, ** p<.01, *** p<.001

4.4 측정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 및 교육기관 특성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잠

재변인 간 효과크기를 살펴본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유의도 수준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Table 6은 연구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제시한 것이며 분석결과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학습자 특성이 성인교육자 특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790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성인교육자 특성이 교육기관 특성에 미치는 영향(.560),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참여 동기(.520)에 미치는 영향 순이었다.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경우, 학습참여 동기의 직접효과(.460)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 특성의 직접효과(.227)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매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종속변인에 직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반면, 완전매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만 종속변인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모형에서 성인학습자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교육자 특성이나 학습참여동기, 교육기관 특성 등의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매개효과의 조건으로 직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도가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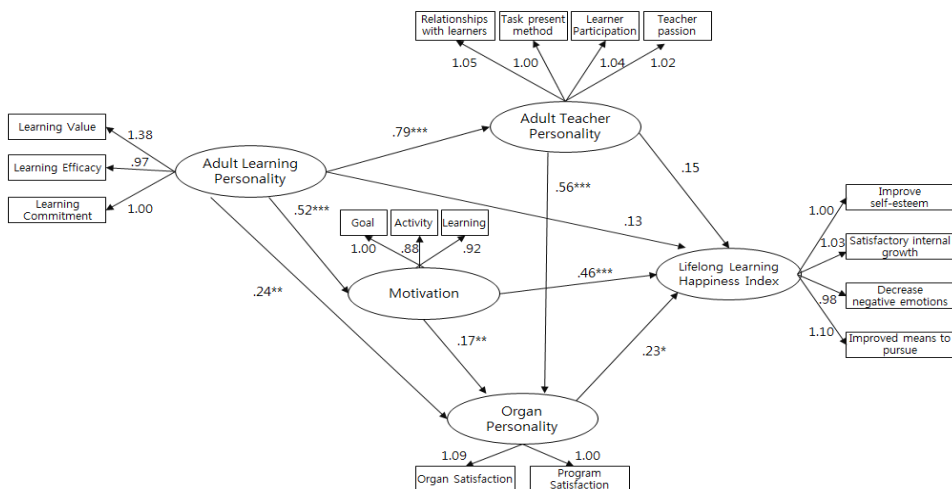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해 성인학습자 특성이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직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lifelong learning and the overall happiness index (n=314)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Adult Learner Personality →	Adult Teacher Personality	.790*	-	.790*
	Motivation	.520*	-	.520*
	Organ Personality	.236*	.529**	.765*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130	.532*	.662**
Adult Teacher Personality →	Organ Personality	.560**	-	.560**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152	.127**	.279*
Motivation →	Organ Personality	.166*	-	.166*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460*	.038**	.498*
Organ Personality →	Lifelong Learning happiness Index	.227**	-	.227**

* $p<.05$, ** $p<.01$

5. 결론 및 제언

5.1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평생교육 활동의 주체인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참여동기, 성인교육자 특성, 교육기관 특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 교육기관 특성의 매개효과를 다양한 경로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기관 특성이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가장 잘 매개하는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평생학습 참여경험, 직업,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즉, 내용영역에 따른 평생학습 행복지수의 차이는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즐겁고 의미있는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참여한 후의 성취감이 쌓여 행복이 향상된다. 이러한 평생학습 경험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학자들의 주장[4, 19, 21, 22, 23, 13]이 있지만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력에 따라 행복감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권혜인[4], 권인택[5], 고은현·이성[13]의 연구 결

과와 같지만 여성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숙원[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 행복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권인택[5]의 연구결과와 같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감을 가진다는 이숙원[2]의 주장과, 권혜인[4]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권인택[5], 권혜인[4]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에 참여한 후 성별, 학력별 등 인구통계학적 행복감에 차이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행복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단순한 잣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학습자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성인학습자들이 개인적인 수준인 학습가치, 학습효능감, 학습몰입의 정도는 평생학습 행복지수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박영실[18]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하며 학습에 참여한 후의 성취감에서 진정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자기창조의 삶을 목표로 한 학습활동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따라 학습 후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이것은 행복지수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가치감이나 효능감, 몰입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효과적인 매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인학습자 특성이 성인교육자 특성과 학습참여 동기 및 교육기관 특성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가치감, 효능감, 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교육자에 대한 인식이 높고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숙원[2]의 연구결과 중에서 기관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를 포함한 교육기관 특성이 학습참여도, 참여성과, 참여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권혜인[4]의 연구결과 참여동기에 따라 행복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넷째, 성인교육자 특성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참여 동기와 교육기관 특성은 각각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행복지수에 성인교육자가 직접 매개하지 않는 반면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가 직접매개하는 것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학습자는 스스

로 결정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것은 참여동기의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성인학습자의 행복지수에 효과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로부터 교육기관의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 질관리 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이숙원[2], 김애련[7], 김혜숙[8]의 연구 결과, 교육기관이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지속 의지, 학습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도 시사하는 바와 같다. 김진호[6]의 학습진행방법 요인과 교육자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습내용요인만 유의하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성인교육자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매개 역할을 하지 않으며, 학습참여 동기와 교육기관 특성은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대해 각각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참여 동기는 성인학습자 특성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대해 완전매개 역할도 하지만, 교육기관 특성 변인을 통하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기관 특성은 성인교육자 특성, 학습참여 동기와 평생학습 행복지수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가 높고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평생학습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학습자가 평생교육 참여 경험을 통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중요하며 충분한 동기가 유발된 상태에서 성인교육자의 효율적인 교육방식과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교육서비스의 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참여 동기를 고취하고 평생교육기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관 환경 등의 교육기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5.2 제언

첫째,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교육자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동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펼쳐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행복지수는 학습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기관, 성인교육자, 성인학습자 의식 등 다양한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1] H. S. Lee et al., "Regional lifelong learning society realizes Stud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2.
- [2] S. W. Lee,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Adult Learners' Persistence in University Attached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3] S. K. Lim, "An SEM Analysis on Participation Outcomes and Effect Factors of Female Adult Learner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07.
- [4] H. I. Kwon, "Study for difference in happiness depending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 participation of adult learners". Department of Urban Studies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13.
- [5] I. T. Kwon, "The Effect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ve Motivation on their Program Satisfaction and Happiness according to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he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Vol.11, No.3, pp. 13-164, 2013.
- [6] J. H. Kim,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of Participants in Adult Learning Programs".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Education Graduate School National University, 2003.
- [7] A. R. Kim, "A Study on Learning Outcome Perceives bt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Dep.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4.
- [8] H. S. Kim,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Learning Outcome of Adult Learners and Education Factor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Major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 [9] E. K. Seo, "The origins of happiness". 21st Century Books, Seoul, 2014.
- [10] S. K. Kim, Y. S. Jang, H. S. Cho, M. S. Cha,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11] M. S. Kim, Y. S. Ha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Vol.9, No.2, pp. 1-38, 2006.
- [12] E. K. Seo et al., "Koreans' happiness Index and Meaning".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ymposium, 2010.
- [13] E. H. Koh, S. Lee, "Study on Happiness of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 of Life for Adults". Educational research methods, Vol.26, No.4, pp. 851-870, 2014.
- [14]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Paris: OECD, 2011.
- [1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ISSUE Brief", No.9,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2.

- [16] D. R. Sin, "Happiness and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Vol.18, No.3, pp. 191-208, 2000.
- [17] C. K. Yoon, "Challenges and Hindrances in Constructing Networks in Community and Meaning of Learning".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5, No.1, pp. 31-65, 2009.
- [18] Y. S. Park,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With Focus on Sense of Self-respect and Immersion-", HRD Research, Vol.12, No.4, pp. 113-136, 2010.
- [19] H. Y. Jang, "Implic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Andragogy Today, 15(1), 2012.
- [20] Walking Into the light, Functional happiness, Retrived from <http://walkingintothelight.com/Functional-Happiness/>, 2014.11.28
- [21] Y. J. Kwon, S. O. Lee, "Five Yard of Lifelong Learning", Seoul: Educational History of Science, 2000.
- [22] Narushuima, M., Liu, J., & Diestelkamp. N., The association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Implication for interdisciplinary health promotion in an aging society, Actinirities, Adaptation & Aging, Vol.37, pp. 239-250, 2013.
DOI: <http://dx.doi.org/10.1080/01924788.2013.816834>
- [23] Sabates, R., Hammond, C., Th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on happiness and well-being, London: Centre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2008.
- [25] Eccles, J. S., & Wigfield, A., Teacher expectancies and student motivation. In J. B. Dusek (Ed.), Teacher Expectancies, Hillsdale, NJ: Erlbaum, pp. 185-226, 1985.
- [26] K. S.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er, 2007.
- [27] M. H. Yang,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28] Guglielmino, L. M.,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77.
- [29] Houle, C. D.,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30] Boshier, R.,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Vol.21, pp. 3-26, 1971.
DOI: <http://dx.doi.org/10.1177/074171367102100201>
- [31] Grotelueschen, A. D., "Quality Assurance i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Occasional Papers 2. Dept. of Adult Education", Univ. of Georgia, Athens, GA, 1986.

김 미 영(Mi-Young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공업기술 교육학과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관심분야>

평생교육, 성인학습, 저기반교육, 행복감정

강 훈(Hun Kang)

[정회원]



- 2013년 2월 : 국제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뇌교육학과 (뇌교육석사)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사수료

<관심분야>

평생교육, 성인학습, 리더십·자기주도학습